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제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령: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뜨거운 땀으로 나는 전우애

소대장 실습...고된 훈련 잊고 서로 격려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는 마음의 여유 없음을 몸 구석 구석에서 하얗게 새어나와 몸을 지치게 한다.

강원도 화천의 7월 마지막. 우리는 3주동안의 문무대에서 교육의 마치고 1주 동안의 소대장 지휘 실습에 임하고 있었다. 동기생들과 각 연대, 대대로 나눠져 우리 중대는 6명이 편성되어 1주일 동안의 공작합동 훈련을 하기로 예정되었는데 그 훈련장까지의 30여km의 행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원도 산과 계곡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1소대 전습소대장으로 1소대는 선두에서 중대를 이끌고 가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소대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덧 땀은 속옷을 적시는 뜨거운 땀으로 가득했다. 뜨거운 땀과 힘든 숨가쁨은 병사들의 애환을 관통해 어느덧 눈앞이 사라지게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회에서의 동료 의식을 느끼게 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격의 없는 군대와 사회의 생활에 대해 대화

를 가질수 있었으며 이 관계는 훈련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속되었고 그 진실은 헤어지는 날의 뜨거운 약속이었다.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때의 일들은 과거 하나의 힘든 경험만이 아닌 앞으로 나의 생의 한 부분을 차지할 그곳의 생활로 결코 우울과 허무와 힘 없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것이며 그곳에서 인생을 느끼며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남자를 만의 세계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전우애와 신뢰감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자신 항상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순리대로 행함이 옳은 것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으나 강원도에서의 1주일의 자연의 웅장함, 경이로움,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잃어가고 있는 자연의 마음을 되찾지는 못할지라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것을 찾았던 소중한 한여름의 시간이었다.

김진웅
(신공4)

‘여성흡연’ 性문제로 확대논란

주체적 노력으로 나약한 인식 극복해야

이번 학기부터 정의와 학회실이 “금연포고령”과 제 규율조치로 인해 아주 깔끔해졌다. 자유스런 토론의 장으로, 만남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금연포고령”은 여러가지 현실을 빚게 되었다. 담배를 복도에서 피우다 보니 남학생들의 흡연과 달리 여학생의 흡연이 끊이지 않는 눈길을 받게 된 것이다.

신입생 OT때 여학생들의 흡연은 내게 적지않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때까지 지녀온 도덕적 편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일을 계기로 성차별(혹은 여성문제)에 눈을 뗀 것 같다.

흔히 여성 흡연에 반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여자가기 때문에”라는 두가지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담배가 여성의 건강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럴 때 “산모 건강에 태아 건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간접 흡연의 경우도

고려해봐야 한다. 후자의 경우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단지 그대여 여자는 이유만으로 금연하시오”란 건 “단지 그대여 여자이므로”까지 입으로 안팎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성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인데, 이야기가 이만큼 발전하다 보면 또 반드시 제기되는 ‘여성’에 대한 반박이 있다. 여성 스스로 여성 문제를 만들고,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性的 상품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은 야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으로 서양인형을 방불케한다는, 또한 여성은 본성상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남성이나 他人에게 기대하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여성의 모습이며, 일정 정도 여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불무할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문제의 근원은 여성의 본성(?)이나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여성

반영경
(정외2)

동연, 동아리 등록 차별

대표자의 주관적 편견은 불합리해

대학에서의 동아리의 활동은 ‘대학 문화의 꽃’에 비유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학우들의 학문에 대한 욕구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충족 시켜주는 동아리의 자치활동에서 건전한 대학 문화가 창달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아리들 중에 지난 3월에 ‘가(假)동아리’로 인준받은 ‘인출출’과 ‘연구회’(이하 인출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이 상존하며 기업화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올바른 언론을 지향하기 위한 회원들의 모임으로서 6개월이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지난 17일 대표자회의에서 정식 동아리로 인준을 받지 못함으로써 1년이상 준비하고 활동하였던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낱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출출이 정식 동아리로 인준받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학술에서 학술분과내에서 정한 ‘동일’을 주제로 발표하지 않고, 다른 주제 발표했다는 것과 둘째는 대표자회의에 동아리 대표가 불참했다는 점, 기타 활동의 부진성이 그것이다.

물론 신생동아리로서 부족함이 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동아리 회칙상, 등록에 필요한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인출출원은 동아리의 자적 박탈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에 호응하는 전체동아리(신규 동아리 포함 63개)의 1/4이상(21개)의 대표자들의 임시총회발의를 받아 대표자 회의의 다시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인의 자주성을 무시한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비억제는 국민만이 하는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의 하나가되어 서로 규제를 해주어야 그동안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7일간의 문제제기 기간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들의 이해와 요구의 수렴과 복지문제에 애초 점을 감안하지만 동연은 동아리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사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현정
(사회·3)

가진 자들의 과시욕 버려라

국민 소비억제 강요, 아전인수격

한국인은 상당히 남을 신경쓰는 민족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옛날에는 시집·장가 환갑때는 빚까지 내가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습처럼 되었었다. 요즘은 우리들 사는것을 보면, 옛날의 그 과시욕이 퇴색아닌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좀 살만해지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남보다 나아보이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치장들을 한다. 의제충용차, 기백만원짜리 옷, 수십만원짜는 한끼 식사들.....

해아라면 수도없이 많다. 지금 사회에서 10%정액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운동’같은 것으로는 자국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자각이다.

성낙용
(국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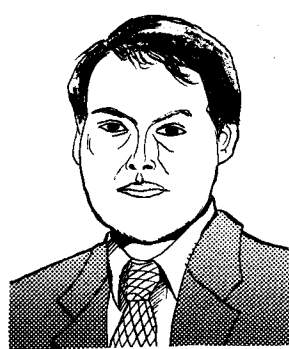
자식교육 몸소 실천하신 어머니

22399
9월 주제
‘어머니’

사람의 세상살이야 크게 다를 바 없고 우리네 어머니들 인생 역시 비슷한 노정을 걸어왔으리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엔 한가닥 연민으로 베어 있는 아픔들이 있다. 그것은 모성애로 이름 지어질 본능이 아니라 자신을 불사르며 자식들에게 뼈와 살을 나누어 먹이는 어머니의 처절한 인생노예 때문이다. 동양의 어머니들,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러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며 한평생을 살아 오신 한 많은 생이 아니었나 싶다.

나의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려운 시기에 이땅에 사셨고 자식들 교육을 위해 살신하였던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김해 김씨 집안인 오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나서 1953년에 수성 최씨말마들(나의 아버지)에게 시집 오신 뒤로 여섯의 자식을 낳으셨다. 우리 육남매는 맏이인 나를 제외하곤 모두 딸이었는데 이렇게 딸을 많이 생산하신 어머니라 손자를 기대하시는 조부, 조모에게 능력없는 며느리로 대접 받으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당신의 어려

움을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외아들인 내게 보다는 누이동생들에게 더욱 각별한 정을 보이시곤 했다. 어머니의 자녀교육 방침은 생각해 보면 내전 차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딸들을 귀하게 키우시고자 애지중지하셨고, 맏이인내전 남자로써, 장남으로서의 기질을 가지도록 가혹하게 냉정하셨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



최근원
(산업대 교수·원예학)

고통과 인내로 한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실천적 삶은 소리없는 가르침으로 내인생의 지표와 참가치가 되었다

이제 혼인을 해 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지만 아내를 보며 어머니를 기대하는 건 나의 부족함인가 싶다. 아내에게 어머니를 기대한다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도 없지만, 아내와 어머니를 보는 내 마음속의 저울질이 수평적이지 못함은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전통적 어머니상을 이어 받지 못하는 부족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욱 본능적인 거부하는 삶을 젊은 여성들로부터 보게될 때 어머니에 대한 나의 회상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싶다.

한평생을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 오시 남겨진 투박한 어머니의 손잔들을 보면서 우리들 인생의 참가치란 바로 저런 것이 아닌가 한다.

교수동정

우제리교수 독일행

▲선우철(체육과) 교수=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논문발표차 일본방문 ▲정성진(공대·화학)교수=지난 29일부터 10월6일까지 심포지엄 참석차 대만방문예정 ▲우제리(공대·섬유공학)교수=지난 27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국제섬유기계전 참가차 섬유기계제작공장 견학차 독일·스위스 방문 ▲허유(공대·섬유공학)교수=오늘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독일방문예정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팩스】 ◆학생증=▲강광석(국문·90) ▲김정환(국문·90) ▲김태규(사학·88) ▲

연경아(수학·87) ▲김윤수(지리·89) ▲최수진(지리·90) ▲백미자(법학·87) ▲한현성(경영·90) ▲정필원(경영·87) ▲이상민(경영·87) ▲고대영(경영·86) ▲오근수(경영·85) ▲김종환(경영·87) ▲김명환(경제·86) ▲정용준(경제·86) ▲황성업(경제·91) ▲김상훈(무역·84) ▲이근재(회계·84) ▲손동원(영교·90) ▲최원준(의예·91) ▲신상중(의예·87) ▲정선경(치의·87) ▲금보경(치의·88) ▲정만교(치의·89) ▲김승희(기약·87) ▲김성길(기약·91) ▲김수호(작곡·87) ▲김정호(체육·91) ▲이민숙(체육·88) ▲염상철(체육·87) ▲김소영(체육·86)

【수원팩스】 ◆학생증=▲안병국(우주·87) ▲하재영(우주·86) ▲신인수(섬유공·88) ▲이영은(요공·88) ▲도서대출(중·88) ▲김종호(행정·91) ▲박영민(우주·91) ▲박종규(건축·91)

▲김창중(기계·86) ◆ AIWA카세트=지난 25일 1교시 외대 332강의실.

동문모임

영복고 오는 1일 동문회 【서울팩스】 ▲남대전고=오는 4일 오후6시 체대앞 녹원

▲장정호=오는 2일 오후6시 경희주점 ▲마산 창신고=오는 4일 6시 정문앞

【수원팩스】 ▲영복고=오는 1일 오후5시30분 외대식당 ▲체원고=오는 1일 오후 5시

30분 외대식당 ▲한성고=오는 2일 오후5시30분 공대후계실 ▲체포인일고=오는 1일 오후5시30분 외대앞

등기

등기를 총무과로 【서울팩스】 ▲이은정(물리·4) ▲김형돈(물리·2) ▲임동준(사학·2) ▲남길현(사학·2) ▲이길성(영문·4) ▲김석규(영문·4) ▲임정우(화학·2) ▲전중호(화학·3) ▲김희연(법학·2) ▲안상진(경영·2) ▲김강희(경영·3) ▲박창모(경영·4) ▲정명규(경영·4) ▲이일규(경영·4) ▲조용진(경영·1) ▲박기범(경제·4) ▲곽해용(경제·3) ▲강기정(무역·2) ▲박동재(신방·3) ▲김용태(정의·4) ▲김송필(미교·2) ▲윤지현(의상·2) ▲박원주(의상·2) ▲이영민(예과·2) ▲이철로(의본·2) ▲

이준환(한외·2) ▲이석철(한외·1) ▲김지연(한외·2) ▲신광은(한외·1) ▲김현희(기약·3) ▲최윤환(기약·1) ▲김영진(성악·1) ▲김명진(성악·1) ▲박준은(체육·2) ▲이미정(무용·4) 【수원팩스】 ▲김진아(영문·4) ▲정승기(전차·3) ▲이종한(전차) ▲정진석(원차·2) ▲곽상섭(산공·3) ▲오준철(건축·4) ▲조계현(토목·3)

대학생 음악 경연대회

‘제15회 전국 대학생 음악 경연대회’가 내달 3일 본교 주최로 16개 대학 23개팀이 참가해 크라운홀에서 개최된다. 합창부와 합주부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의 대학생 예술 행사로 본교에서도 합창부와 합주부에 고전기타반과 오케스트라가 참가한다.

목심 많은 여성 없습니까

비서 자격 시험 시행
노동부 내년 1월부터

정보화·국제화·사무자동화·경영합리화 등으로 인해 「전통비서」에 대한 수요가 사회각계에서 급증. 이제 비서가 단순복합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사무처리 능력은 물론 교양, 감각, 재치까지 갖춰야 하는 비서직이아말로 여성의 감각과 능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 교육과목
비서실무, 인간관계, 사무관리, 경영학, 사무OA 실습, 예약실무, 영어·일어, 속기, 교양(메이크업, 코디네이션, 직장예절)
- 전문비서반
어학과 속기를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기술 습득에 역점을 두어 비서지질 향상 도모
- 일반비서반
비서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효과적인 교육
- 1일 4시간 주5회 5개월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 91. 9. 16~10. 8
등록기간: 91. 10. 9~10. 12
혜택 및 특징: 전원 취업추진, 단기비서과정업무 대령, 「코로샤넬 비서실」운영해 각종정보 제공

입학상담: (02)319-2266(내) 취업의뢰: (02)319-2267
※서류전형후 합격자 개별 통지
※전화·우편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입학원서 무료 배부처
신촌·홍익문고/대학로·바로크로코도 박화정/시청·태평서적센터/종로·세고비아거리, 중앙악기/강남·월드복센터/을지로·을지서적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4 장우빌딩 별관 (남산독립문화원 뒤편)
TEL: (02)319-2266(내) FAX: (02)319-3667

英·日·中·露·佛語

고려외국어원

외국어교육의 센터

BE WINNERS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英 字 日 刊紙 The Korea Herald 直 營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10월 1일

독 해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 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현영어,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실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 을 위한 1월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일어
제2외국어, 불, 중, 서반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주)시사영어사

현 대 시사 어 학 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TOEFL L.C.
- TOEIC
- GRE
- AFKN영어
- TIME
- Voc 22,000
- Word Power

- 영어실력기초
- 성문기본영어
- 성문종합영어
- 영어회화
- 영어문법연구
- 영작문연구
- NHK필름
- 일본어 초·중·고급
- 일본어 독해
- 한국어 초·중·고급
- 중국어 초·중·고급
- 스크린 중국어

개강 10월 1일

수시등록

교과대공인 전문원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편
(273)4395~7/5081~2